

텔레비전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나타난 가족주의

윤석진*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제도적 가족주의 : 남성들의 부재와 여성들의 생존
3. 관계적 가족주의 : 여성들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족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나타난 가족주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의 곤고함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가족드라마로 주목받았다. 본고에서는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와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의 관점에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남성 생계 부양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된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담아낸 가족드라마이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남성 가장의 부재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여성들의 사연을 통해 제도적 가족주의에 나타난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여성들만으로도 가족 서사가 완성될 수 있음은 물론, 혈연에 제한되지 않는 우정으로서 가족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드라마이다. 특히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여성 인물들을 통해 개별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되었던 모성 담론의 한계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면서도 남성이 부재하는 급진적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여성들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의 지향이라는 절충을 시도한 가족드라마라 할 수 있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가족드라마, 관계적 가족주의, 김인영, 제도적 가족주의, <착하지 않은 여자들>, 텔레비전드라마

1. 들어가는 말

텔레비전드라마는 불특정 다수를 소구 대상으로 삼는 매체의 특성상 영화를 위시한 영상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재와 표현의 제약이 많다. 이러한 창작 여건의 한계 때문에 텔레비전드라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심한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¹⁾ 텔레비전드라마의 보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르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해체되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에 대한 향수와 복원에 대한 갈망이 담긴 가족드라마이다.²⁾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가족 해체 현상³⁾을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위주의 전통적 가족 담론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일연속극과 주말연속극이 대표적이다. 특히 KBS2 TV 주말연속극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현실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담론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⁴⁾ 시청자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구조에서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상실된 가족애의 회복을 꿈꾸는 방식으로 일련의 가족드라마에 호응한다.⁵⁾

1) 김환표,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 인물과사상사, 2012, 383~385면 참조.

2)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 가족드라마의 가족자유주의 양상」, 『어문논총』 제34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2, 38~39면 참조.

3) 장경섭, 『내일의 종언(終焉)-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239면 참조.

4) 윤석진, 앞의 논문, 71면 참조.

5) 백경선, 「김수현과 노희경 가족드라마의 대중성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

가족의 중요성은 주로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강력하게 표현된다. ‘유일한 위안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강력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열망이 내포되어 있는데, 가족은 이러한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형성된 집단이다. 완전한 가족의 서사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모든 것을 대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유토피아의 형식으로 구축되는 것도 그래서이다.⁶⁾ 텔레비전드라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어머니와 두 딸이 차갑고 냉정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드라마 <엄마의 바다>⁷⁾가 그랬다. <엄마의 바다>가 한 가족의 위기에 집중한 경우라면, <육남매>⁸⁾는 사회적·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경제 위기 극복의 희망을 담아낸 가족드라마로 주목받았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어린 육남매를 데리고 세파를 헤쳐 나가는 어머니의 사연에 초점을 맞춘 <육남매>는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⁹⁾ <엄마의 바다>와 <육남매>는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된 여성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매개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강화에 기여한 가족드라마였다.

텔레비전드라마 가족 서사에서 여성 담론은 주로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과 박사학위논문, 2012. 8. 139면 참조.

6)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33~34면 참조.

7) 김정수 극본, 박철 연출, 김혜자·고현정·고소영 등 출연, MBC, 66부작, 1993. 5. 15 ~ 12. 26 방영.

8) 최성실 극본, 이관희·이민철 연출, 장미희·오태경·이미미·노형욱 등 출연, MBC, 100부작, 1998. 2 ~ 1999. 12 방영.

9) 윤석진, 위의 논문, 45면 참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었다. ‘아버지’나 ‘남편’으로 통칭되는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나 ‘장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재하는 남성 가장을 대신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다.¹⁰⁾ 특히, 책임감과 죄책감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 초자아의 역할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폭력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모성은 이상화되어 윤리적 알레고리가 되어왔다.¹¹⁾ 이는 곧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위기 상황에서 ‘모성’으로 포장된 여성 가장의 위치가 유교 자본주의의 균열이 다층적으로 드러나는 지점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¹²⁾ IMF 외환위기가 남성 가장의 위기로 재현되고, 그 결과 ‘부성 또는 부관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가족의 연대를 강조하는 담론이 폭증¹³⁾한 것과 맞물려 텔레비전드라마 가족 서사에서 여성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달리,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성’으로서의 어머니가 호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생계 책임자 아버지’ 모델의 지지층인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생계 책임자이자 가장인 아버지의 기를 살리는 것에 매달리는 대신 모성을 호명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생계 책임자 아버지’ 가장을 전제한 핵가족 모델의 붕괴는 성 중립적 노동자 시민을 가정한 노동시장 및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당연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일단이 구성되었음을 상징한

10) 강남식, 「빈곤·여성·가장·삼중의 수난」, 『황해문화』 33, 새얼문화재단, 2001. 12, 64~65면 참조.

11) 임옥희, 「신자유주의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 『여/성이론』 (22), 도서출판 여이연, 2010. 6, 13면 참조.

12) 조은,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26(1), 한국여성학회, 2010. 3, 71면 참조.

13) 박혜경,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 and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3), 한국여성학회, 2011. 9, 89면 참조.

다.¹⁴⁾ 이처럼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한 가족의 변화는 텔레비전드라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가장의 부재라는 위기 상황에서 여성 3대의 각기 다른 삶을 통해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달라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형상화한 <착하지 않은 여자들>¹⁵⁾이 대표적이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여성 3대가 여성 특유의 공감과 연민의 정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가족드라마이다.¹⁶⁾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정서적 유대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가족 서사의 새로운 여성 담론을 모색한 가족드라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¹⁷⁾ 특히 대부분의 가족드라마가 여성 인물들을 선한 피해자로 그렸던 것에 비해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의 곤고함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28회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¹⁸⁾

본고에서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14) 조은, 앞의 논문, 70면 참조.

15) 김인영 극본, 유현기·한상우 연출, 김혜자(강순옥 역)·장미희(장모란 역)·서이숙(나팔년 역)·도지원(김현정 역)·채시라(김현숙 역)·이하나(정마리 역)·이미도(박은실 역)·이순재(김철희 역)·박혁권(정구민 역)·손창민(이문학 역)·송재림(이루오 역)·김지석(이두진 역)·최정우(한충길 역)·김혜은(안종미 역) 등 출연, KBS2, 24부작, 평균 시청률 12%, 최고 시청률 13.7%, 2015. 2. 25 ~ 5. 14 방영.

16)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주중 미니시리즈에서는 보기 힘든 ‘가족드라마’인데, 이에 대해 유현기 연출은 제작발표회에서 “가족물이 주를 이루는 주말극에 비해 주중은 장르물이나 트렌드물로 이루어지곤 한다.”라며 “이번 계기로 주말극보다 색채감이 풍부하고 입체적인 가족극을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주중 미니시리즈에 가족드라마를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150223173910348> 2019년 7월 4일 최종 검색.)

17) 김인영 작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적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대중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주숙희, 「김인영의 미니시리즈 드라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2. 7면 참조.)

18) 한국방송작가협회 편, 『방송작가』 통권 117호, 2015. 12. 66면.

수렴하기 어려운, 남성 가장이 부재한 위기 상황을 여성들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극복하면서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한 가족드라마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IMF 외환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에 대한 사회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주의 개념 중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항목 가운데 유교적 가족주의, 부계가문의 영속성 등은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가 유교적·부계 계승적 성격이 강하다면, 여자들의 그것은 원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족주의 요소 가운데 원가족과의 관계는 부계규범을 중심으로 한 (남성들의) 제도적 가족주의와, (여성들의) 관계적 가족주의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⁹⁾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나타난 가족주의 양상을 분석하여 1990년대 말의 IMF 외환위기는 물론,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기능 및 의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일단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제도적 가족주의 : 남성들의 부재와 여성들의 생존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의 부재는 가정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남성 생계 부양자는 가구경제의 일차적 소득원에 그치지 않고 노동에서 발원한 불안정성을 가족의 영역으로 전이시키는 매개체가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남성 생계 부양자, 곧 남성 가장이 존재하지

19) 김혜경, 「부계 가족주의의 실제? : IMF 경제 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제47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13. 4, 122면 참조.

20) 장경섭, 앞의 책, 196면.

않는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 및 정서적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 가족 기능의 변화를 겪게 된다.²¹⁾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남성 생계 부양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족 기능의 변화를 담아낸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중심 서사는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강순옥과 그녀의 두 딸 김현정과 김현숙, 그리고 김현숙의 딸 정마리가 살고 있는 ‘안국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에 강순옥의 남편 김철희가 사랑했던 고향 동생 장모란과 김현숙을 퇴학시킨 장본인 나말년(개명 후 나현애) 선생, 그리고 ‘안국동 강선생 요리교실’의 총무이자 강순옥의 제자인 박은실의 사연이 결합된다. 전체 서사의 중심에 여성 인물들이 자리하고, 남성 인물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구성이다. 가족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남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곧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 관계를 탐색한 가족드라마라는 방증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여성 인물의 사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서사의 중심에 놓인 강순옥은 30년의 세월을 남편 없이 홀로 두 딸을 건사하며 살아온 여성이다. 그녀는 집안끼리의 선으로 부잣집 외아들 김철희와 결혼하여 연년생으로 두 딸을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남편이 고향 후배 장모란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끝이 났고, 급기야 남편이 화재사고로 죽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21) 박지혜·김근향·고영진, 「한부모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불안,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5, 116면.

이후 30년 동안 타고난 요리 실력에 솔직함과 대담한 말투로 재벌가 며느리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면서 '안국동 강선생'으로 명성을 쌓았다. 남편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두 딸과 손녀 모두 큰 탈 없이 잘 자라줘서 인생의 풍파는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리교실 확장에 사용하기 위해 모아 놓은 돈을 둘째 딸 김현숙이 저축은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아버지 산소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장모란의 도움으로 살아나 돈까지 받아온 것을 알게 되면서 강순옥의 인생은 다시금 풍파에 휘말린다. 이처럼 강순옥은 남편의 죽음 이후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릴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가장이면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 사랑했던 여자 장모란에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여성으로 전체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물이다.

나현애로 개명한 나말년은 사범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임하여 썩은 가지는 일치감치 잘라내야 한다는 교육 철학 때문에 김현숙과 악연을 맺은 교사이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에서 아들 없는 집안의 다섯째 딸로 태어나 온갖 구박을 받았으나 악착같이 공부해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입주과외로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만난 체육교사 한충길과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정계한 학생 김현숙의 일탈 행위를 옹호하는 칼럼을 쓴 이문수 기자와 만났다가 그가 재력가의 자식임을 알고 사랑 대신 경제적 부를 선택했다. 가난한 한충길 대신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이문수와 결혼한 것이다. 하지만 재혼 이후에도 죽은 아내만을 사랑했던 남편 때문에 그녀의 삶은 외로웠고, 그로 인해 남편의 죽음 이후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부장제의 권위적 폭력성을 내면화하였다. 이처럼 남성 가장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채 친정 식구들을 건사하는 가장 역할을 떠맡았던 나말년은 여성으로서 남성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곧 나팔년이 남성 가장의 부재를 대신하면서 가부장적 명분에 충실²²⁾한 여성이었음을 의미한다.

강순옥과 나팔년이 남성 가장의 부재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한 여성이라면, 장모란은 첩의 딸로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태생적으로 존재를 부정당한 여성이다. 강순옥의 남편 김철희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지만, 장모란은 오로지 약혼자만을 사랑했다. 모교의 교장 선생님이 찾다는 김철희의 거짓말에 속아 함께 떠난 기차 여정에서 그의 프리포즈를 받지만, 그녀는 첩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파혼당하고 힘들 때 고향 오빠로서 의지했을 뿐이라면서 프리포즈를 거부한다. 화가 난 김철희는 장모란이 첩의 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녀의 약혼자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고, 이 사실에 격분한 장모란이 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진다. 객차 연결 통로에서의 몸싸움 끝에 김철희가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장모란은 이후 30년의 세월을 죄책감으로 살았다. 이처럼 장모란은 남성 가장이 원초적으로 배제된 환경에서 태어나 첩의 딸로 성장하고, 김철희 때문에 강순옥과 그녀의 가족에게 불륜녀로 낙인찍힌 삶을 살다가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강순옥을 만나 정서적으로 연대하게 되는 여성이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김철희가 살아 있음을 알고 복수를 다짐하는 장모란의 개인적 분노는 강순옥과의 연대를 통해 남성적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확장된다.

강순옥과 나팔년 그리고 장모란이 부모 세대의 여성을 대변한다면, 김현정과 김현숙 자매 그리고 박은실은 자식 세대의 여성을 대변한다. 김현정은 결코 용인 받을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가족을 버린 아버지

22)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93면 참조.

의 죽음 이후 사랑을 믿지 않는 여성이다. 그녀는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책임감²³⁾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방송사의 유명 앵커로 성공하였다. 여대생들이 선망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정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남성 가장의 부재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개별적 존재로서 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남성 이문학의 구애와 사랑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김현정은 대부분의 가족 문제가 유교적·부계 계승적 가족주의에서 비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남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김현숙은 강순옥과 함께 전체 서사의 중심축에 자리한 인물이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내한 공연 온 팝 가수 레이프 가렛에게 빠져 정학 처분을 당했다. 그리고 담임이었던 나말년 선생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친구가 훔친 물건인 줄도 모르고 구입하여 선생님에게 선물한 캐시미어 목도리 사건으로 결국 퇴학을 당한다. 이 사건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²⁴⁾에서 버림받음으로써 사회 적응에 실패한 김현숙은 언니 친구이자 검정고시를 도와주던 과외선생님 정구민과 눈이 맞아 19살에 딸을 출산한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김현숙은 자신의 결핍을 대리 충족하기 위해 딸을 명문대 최연소 박사로 만들지만, 짧았던 학창 시절의 나쁜 기억과 언니에 대한 열

23) 김혜경, 앞의 논문, 2013, 131면.

24) 남영옥,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9, 221면 참조.

등감은 지우지 못한다. 게다가 자신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 정구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별거와 함께 이혼을 요구한다. 이처럼 김현숙은 남성 가장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여성이다.

김현숙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달리 30년 만에 살아 돌아온 아버지를 기쁘게 반긴다. 그렇다고 그녀가 어머니 강순옥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박은실의 모함 때문에 모욕적인 상황에 처한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존재가 바로 그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현숙은 전통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유교적·부계 계승적 성격의 제도적 가족주의에 함몰되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강순옥의 제자로 ‘안국동 강선생 요리교실’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은실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여성이다. 그녀는 조실부모하고 할머니 품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요리를 배우다가 강순옥을 만나 안국동에 들어와 요리 수업을 맡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번번이 때가 아니라는 강순옥의 말에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타고난 요리 감각을 자랑하는 김현숙에게 수제자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해한다. 결국 박은실은 ‘안국동 강선생’의 요리 레시피를 노리던 레스토랑 사장의 유혹에 넘어가 강순옥을 배신한다. 그녀는 강순옥의 요리 노트를 훔쳐 레스토랑에 취직한 뒤에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지만, ‘안국동 강선생 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낸다. 이처럼 박은실은 김현숙과 마찬가지로 남성 가장의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여성이다. 동시에 그녀는 ‘안국동 강선생 요리교실’의 총무라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문제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한다. 외형적으로 전체 서사는 유교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남성 가장 부재 상황의 핵심 인물인 김철희가 30년 만에 안국동으로 돌아오면서 내면에 가라 앉아 있던 가족 문제가 드러난다. 유교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김철희를 통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극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김현숙이 저축은행 주식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30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장모란이 안국동으로 들어오고, 뒤이어 문제적 남성 가장 김철희가 안국동에 나타난 이후 상황에 대한 강순옥과 김현정·김현숙 자매, 그리고 장모란의 각기 다른 반응에서 30년 전에 비해 확연하게 약화된 남성 가장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 제도적 가족주의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30년 전에 술집 화재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김철희는 강순옥의 남편이자 김현정·김현숙의 아버지로 안국동의 남성 가장이었다. 하지만 고향 동생 장모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순옥과 이혼하겠다는 한 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술집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다. 30년 전 장모란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약혼자 집안에 편지로 알려 파혼을 유발한, 김철희의 파렴치한 행위는 술집 화재사고로 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려졌지만, 강순옥과 두 딸은 물론, 장모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30년 전 김철희의 죽음은 기차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은 그의 상의를 훔쳐 입은 강도가 술집 화재사고로 죽은 것에서 비롯한 오해였고,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양미남’이라는 이름으로 요양원에서 살았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기억의 편린을 되찾은 그는 30년 전의 상황을 후회하면서 뒤늦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지만, 남성 가장으로서 그의 존재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남성 가장 김철희가 부재하는 동안, 강순옥을 중심으로 한 여성 3대의 서사에 장모란까지 합세하면서 형성된 정서적인 관계적 가족주의 때문에 유교적·부계 계승적 성격의 제도적 가족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남성 가장의 부재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여성들의 인생이 제도적 가족주의에 균열을 일으키고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관계적 가족주의 : 여성들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

IMF 외환위기 이전의 가족 문제가 주로 논리적인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는 정서적 담론이 추가되었다. 가족은 생활의 구심이 되었고, 주로 낭만적 서사를 통해 가족연대가 강조되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족주의는 집단으로서의 가족 서사만이 아니라 가족 안의 여성과 남성에 관한 서사이기도 한데, 경제 위기의 대부분을 ‘부권 또는 부성’의 상실로 표상함으로써 경제 위기가 가족의 차원으로 전유되었다. 다시 말해 정서화된 위기를 남성의 문제로 만들고, 동시에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젠더화와 함께 사회적이거나 공적인 문제보다 가족의 문제로 전유하는 사영역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²⁵⁾ 이는 곧 한국 사회의 경제 위기에 대한 담론적 대응이 구조적·제도적 차원

의 문제를 가족과 개인의 정서적 차원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남성 가장의 부재에서 비롯한 여성들의 시련과 고난을 주목하되, 여성들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을 통해 제도적 가족주의에서 관계적 가족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1회 도입부에 철학관으로 새해 운수를 보러 간 강순옥의 사연을 배치함으로써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여성들의 시련과 고난을 암시한다. 강순옥은 자신은 김장하고 묻어둔 김칫독이 터지고, 큰딸은 벽에 막히고, 작은 딸은 폭풍이 몰려오고, 손녀딸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새해 운수를 부정한다. 하지만 1년 365일 중에도 바람 불고, 비 오고, 해 뜨고, 번개 친다고 반문하면서 현실을 낙관하던 그녀의 바람과 달리 명문대 최연소 교수가 될 줄 알았던 손녀딸의 인문학 강의가 폐강되고, 둘째 딸은 저축은행 주식 투자사기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리는가 하면, 첫째 딸은 호시탐탐 앵커 자리를 노리는 후배들에게 밀리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불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남편의 죽음 이후 30년의 세월 동안 모든 풍파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던 강순옥의 인생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처럼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각기 다른 위기에 직면한 그녀들의 사연을 1회 도입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적 영역의 가족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틀잡기²⁶⁾를 시도한다. 1회 도입부에 전개된 일련의 에피소드를 통해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과 맞서기 위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강요했던 ‘착한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틀(frame)이 만들어진 것이다.

25) 박혜경, 앞의 논문, 85~96면 참조.

26) 에슬린, 마틴, 김문환·김윤철 역, 『극마당 : 기호로 본 극』, 현대미학사, 1993, 65~69면 참조.

가족드라마를 표방하면서도 남성 가장을 배제하고 여성 서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혼인상태와 학력 차이를 불문하고 어머니와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한다.²⁷⁾ 김현정·김현숙 자매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위기 상황을 어머니 강순옥과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극복하면서 가족 서사의 여성 담론을 구체화시킨다.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가치의 공유, 애정과 존경의 상호성에 의거하여 기존의 관습적인 가치와 생활양식과 다른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밀집된 관계로서 사회 변혁을 위한 잠재력이 내재된 여성주의적 자매애(sisterhood)²⁸⁾를 지향한다. 자매애는 여성 억압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속한 여성들 간의 유대감으로 우정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화합하게 하는 우정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부모자식 간의 사랑과 달리 선택적이고, 위계적인 권위 하에 놓이지 않으면서 인격적인 친밀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해주는 관계를 맺으며, 자발적인 자기 공개와 함께 형성되는 특별한 존중에 바탕을 둔 상호 신뢰에서 비롯한다.²⁹⁾ 아내와 자식들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김철희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연을 맺게 된 강순옥과 장모란이 “혈연에 제한되지 않는 가족”³⁰⁾으로서의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학창 시절의 악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하면서 갈등 관계에 놓였던 김현숙과 나팔년이 진정한 화해를 통해 서로의 멘토가 되고, 강선생 요리를 글로 가진 박은실과 몸으로 기억하는 김현숙이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

27) 김혜경, 앞의 논문, 2013, 135면.

28) 김혜경, 「스위트 홈의 꿈을 넘어서 : 새로운 가족구성의 회로찾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7. 11, 104면 참조.

29) 이혜정, 「선택의 공동체와 우정」, 『철학연구』 150집, 대한철학회, 2019. 5, 245~247면 참조.

30) 김혜경, 앞의 논문, 2017, 104면 참조.

라는 주제의 요리 대결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강순옥의 수제자와 딸이라는 자리를 확인하는 결말도 여성주의적 자매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과 아버지가 부재하는 위기 상황은 강순옥과 김현정·김현숙 자매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강순옥과 김현정·김현숙 모녀는 남편과 아버지가 부재하는 위기 상황을 정서적 유대감으로 극복하였다. 강순옥은 요리 수강생들에게 “결혼기념일이라고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전화통 붙들고 사업 얘기라고 서재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아랫목에 밥공기 다시 묻고, 갈비찜 식어서 다시 덥히고, 한 시간이 돼도 안 나와. 정말 돈을 크게 잃었나 싶어서,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애인이랑 속삭이는 거였어.”(1회)라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입담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중매 사건만 보고도 첫눈에 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살아온 여성이다. 게다가 가족 앞에서 이혼 선언을 하고 집을 나간 남편이 술집 화재 사고로 죽은 이후 삶의 의지를 잃기도 했으나, 강순옥은 두 딸과 함께 남편이 부재하는 위기를 잘 헤쳐나왔다. 다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첫째 딸과 달리, 둘째 딸이 퇴학당할 당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못내 미안할 뿐이었다. 첫째 딸 김현정은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동생 김현숙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야단맞고 방황할 때 폐품 더미에서 동생의 일기장을 찾아줄 정도로(8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강순옥과 그녀의 두 딸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남성 가장의 부재에서 비롯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근원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들의 정서적 유대감은 강순옥과 장모란 관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철없는 남자 김철희 때문에 “30년 세월동안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 강

순옥과 인생을 잃어버린 여자 장모란(18회)으로 살아온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혈연주의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우정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강순옥은 둘째 딸 김현숙 때문에 30년 만에 만난 장모란을 발길질로 쓰러뜨리고(2회), 그녀가 위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에 안국동 집으로 데려와 간호를 하면서도 사위 정구민에게 “자네 장인어른 세컨드”(3회)라고 소개하면서 대놓고 빈정거린다. 그리고 요리 수강생들이 보면 곤란하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4회). 하지만 장모란은 강순옥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져앉을 치루는 기분이라며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진다. 그리고 “언니의 요리가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언니의 인생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첼희 오빠 때문에 힘드셨고, 절 미워하고 감싸주시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기 싫은 날도 칼을 잡으셨잖아요. 그 모든 게 모여서 지금의 언니 요리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또 다른 걸 채우셔야지요.”(12회)라면서 강순옥의 30년 세월에 대해 존경심을 표한다. 김첼희에게 각기 다르게 받았던 상처가 그녀들이 정서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꼴이다.

그러나 강순옥에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사랑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가 장모란을 안국동 집에 들인 것은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장모란은 강순옥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그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여 근사한 식사를 대접한 뒤, 함께 스파를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스스럼없이 대한다. 장모란의 제안에 모욕감을 느낀 강순옥은 “나랑 같이 목욕할 생각을 어떻게 해?”(12회)라고 분노한다.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장모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장모란은 자신의 호의가 부정당했다는 서운함에 강순옥의 까칠함이 김첼희를 떠나게 한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고, 강순옥은 그

런 장모란의 태도에 격분해서 호텔을 나온다.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순옥은 아버지가 집에 와 있다는 둘째 딸의 말을 흘려들으며, 제삿날도 아닌데 왜 아버지 혼령이 집에 오냐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당신 닮은 사람이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낼게.”(12회)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애절한 속내를 드러낸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소금을 뿌리며 잡귀야 물러가라고 소리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다.

죽은 줄 알았던 김철희가 살아 돌아오면서 강순옥과 장모란의 관계는 자매애에 가까운 우정으로 발전한다. 강순옥에게는 아내와 자식을 버린 남편이고, 장모란에게는 그녀의 인생을 망친 원수라는 점에서 김철희는 그녀들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물이다. 김철희를 매개로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가 아닌,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가 강순옥과 장모란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장모란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김철희가 그녀를 “마누라”(13회)라고 부를 정도로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면서도, 강순옥의 편에서 김철희의 기억을 바꾸기 위한 계략에 합류한다. 장모란이 자신의 복수심과 별개로, 강순옥과 김현숙이 김철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내 마누란 예쁜데 요리도 잘해”(14회)라고 뽐뽐를 했다는 기억을 새롭게 주입시키는 데 기꺼이 동참한 것도 그래서이다. 하지만 기억을 찾아주려는 아내와 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철희는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면서 안국동 생활을 불편해한다. 마침내 장모란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함께 한 기차 여행에서 사고 당시의 기억이 모두 떠오른 김철희는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가족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라져 요양원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한충길의 집으로 간다.

장모란은 강순옥과 함께 기차 여행 중에 사라진 김철희를 찾기 위해

그가 생활했던 요양원을 방문하여 30년 세월의 흔적을 돌아보고, 김철희는 30년 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장모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안국동으로 돌아온 김철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장모란에게 강릉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장모란은 강순옥에게 김철희가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고, 그로 인해 기차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백한 뒤 강릉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강순옥은 장모란의 망가진 인생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김철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한다. 강순옥과 장모란은 이렇게 김철희를 매개로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연대의식을 느낀다. 이후 강순옥은 강릉 집으로 돌아간 장모란의 부재가 허전하고(19회), 장모란은 박충무의 음해로 요리교실이 위기에 처하자 강릉에서 안국동까지 달려와 강순옥을 위로(20회)할 정도로 두 사람의 자매애는 점점 더 두터워진다.

강순옥과 장모란의 관계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였다면, 김현숙과 나말년의 악연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사범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임하여 철저하게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잘 세우기 했던 나말년 선생의 교육 철학에 김현숙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이들의 악연은 캐시미어 목도리 사건으로 파국을 맞는다. 담임이었던 나말년 선생에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방황하던 김현숙은 잘라내야 할 썩은 가지에 불과한 존재였다.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김현숙은 이사장의 딸이자 옆 반 친구였던 윤미숙이 훔친 물건인줄 모르고 구입한 캐시미어 목도리를 나말년 선생님에게 선물했다가 퇴학을 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졌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울타리가 되어줄 가족³¹⁾이 아버지의 부재로 훼손된 상태였기에 발생

31) 권명아, 앞의 책, 35면 참조.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김현숙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급기야 도박판에 끼어들었다가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비관하면서 찾아간 강릉 아버지 무덤에서 자살하기 직전에 그녀는 나말년 선생의 '참스승상' 수상 기사를 보고 기함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운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김현숙과 나말년의 악연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김현숙은 나말년 선생의 수상 축하 자리에 뒤늦게 나타나 정말 악한 선생이었다고, 다시 태어나면 절대 선생질하지 말라고 울분을 토로하는가 하면(4회), 출판사 대표 이문수의 북콘서트 현장에서 나말년 선생의 교육 철학을 두고 동창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10회). 게다가 나말년 선생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학생들에게 먹을거리를 사주는 것으로 상담을 대신하는 것으로 봉사 활동하는 것을 김현숙이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된다. 설상가상으로 나말년의 아들 이두진과 이루오가 김현숙의 딸 정마리를 사랑하면서 그녀들의 악연은 다시 한 번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나말년 선생은 캐시미어 목도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그녀에 대한 악의를 거둔다. 김현숙 또한 나말년 선생이 어려운 환경에서 친정 식구들을 건사하는 가장이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베이비시터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문수 기자의 칼럼집 출판기념회에서 남편이 남긴 미공개 편지를 읽다가 그것이 이미 세상을 떠난 전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이 공개된 사건을 계기로 나말년에 대한 연민이 깊어진 김현숙은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 선생님에게 대접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한다. 그리고 그녀는 담임이었던 나말년 선생님의 동의서와 서명으로 퇴학 처분이 최종 무효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다짐을

밝힌다. 나팔년도 김현숙에게 야생 잡초를 썩은 가지로 잘못 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이처럼 김현숙과 나팔년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과거의 악연을 청산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가 된다.

나팔년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김현숙이 박은실에게 가해자라는 이중의 위치에 놓인 인물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하다. 김현숙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은실에게 상처를 주는 인물이다. 박은실이 강순옥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성장한 김현숙의 미각을 이기지 못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안국동에 들어온 장모란이 걸핏하면 김현숙에게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워 안국동 강선생의 수제자가 되라고 권유하는 것도 박은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게다가 박은실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요리가 강순옥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김현숙을 질시하면서 강선생의 요리교실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을 올리는 것으로도 부족해 회계 조작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하면, 끝내 강선생의 요리 레시피를 훔쳐 달아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 사건으로 안국동 요리교실이 타격을 받자, 김현숙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30년 동안 두 딸을 데리고 생계를 꾸린 엄마의 부엌에 쳐들어가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20회)라는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고 어머니 강순옥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박은실에게 요리 대결을 제안한다.

김현숙의 반론과 ‘안국동 강선생 요리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글로 수세에 몰린 박은실은 강순옥의 깨끗하게 정리한 요리 레시피를 들고 안국동을 찾아와 자신이 노트를 훔친 것은 아니니, 홈페이지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으면서 김현숙과의 요리 대결을 받아들인다. 김현숙과 박은실의 요리 대결을 반대하던 강순옥은 “현숙이가 이기면 홈페이지 글을 그대로 두고, 박은실이 이기면

다시 돌아와 여기로.”(24회)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요리 대결을 수락한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두진이 기획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요리 대결을 벌인다.

자신만만한 태도의 박은실과 신중한 모습의 김현숙은 요리를 완성된 뒤, 평가단의 시식을 앞두고 각자의 요리 의도를 설명한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 요리를 통해 넌 귀한 사람이다.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전복, 해삼 좋은 재료를 다 동원해서요.”(24회)라는 박은실의 요리 의도와 “처음엔 갈비찜을 준비하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제가 위로받았던 밥상을 한 번 떠올려봤어요. 제 인생에서 힘들던 시절에 며칠 동안 방안에만 틀어박혀 굶고 있을 때 엄마가 해준 요리였어요. 집에 있는 신김치에 돼지고기를 살짝 썰어놓고 찜을 해서 막 지은 밥이랑 같이 방으로 갖다 주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가셨는데, 전 그때 음식이 저에게 말을 건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괜찮아, 힘내. 나는 네 편이야. 위로하는 말은 근사하기보다 따뜻한 게 좋을 거 같아서요. 저도 집에 있는 신김치로 찜을 해봤습니다.”(24회)라는 김현숙의 요리 의도에는 두 사람의 곤고했던 삶은 물론, 가족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시식 결과 무승부라는 평가가 나오자 난감해하는 제작진에게 강순옥은 서로 요리를 먹어보고 평가하자는 제안을 한다. 이에 따라 박은실의 요리를 맛본 김현숙은 강선생 수제자답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김현숙의 요리를 맛본 박은실은 음식을 입에 넣은 순간 “은실아, 찹지. 빨리 들어와라, 밥 먹자, 내 강아지 새끼, 고생이 많았지.”(24회)라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김현숙이 밋고 부러웠다는 속내와 함께 안국동이 너무 그립고 돌아오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박은실은 김현숙과의 요

리 대결을 통해 자신을 억압하던 불안감과 외로움의 공포³²⁾에서 벗어난다. 온전한 자아를 되찾은 박은실은 김현숙과 혈연을 초월한 자매애를 회복하고 비로소 강선생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각기 다른 사연으로 남성 가장의 부제라는 위기에 처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다가 공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여성 서사에 초점을 맞춘 가족드라마이다. 특히 남성 가장의 부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만으로도 가족 서사가 완성될 수 있음은 물론, 혈연에 제한되지 않는 우정으로서 가족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³⁾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문제의식은 마지막 회의 마지막 쇼트에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연출된다.



<장면 1> 17회 가족사진 쇼트



<장면 2> 24회 인터뷰 쇼트

김철희의 젊은 시절 가족사진과 남편과 아버지가 부재하는 강순옥의 가족사진을 대비시킨 17회의 쇼트(장면1)와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인 김철희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족 구성원들만 등장하는 마지

32) 바우만, 지그문트, 정일준 역, 『레트로토피아 : 실패한 낙원의 귀환』, 아르테, 2018, 219면.

33) 김혜경, 앞의 논문, 2017, 105면 참조.

막 회의 마지막 쇼트(장면2)는 가족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가 아닌,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회 결말 장면에서 ‘올해의 어머니상’을 수상한 강순옥은 인터뷰를 앞두고,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애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지요. 어머니상이 아니라 딸들이 받을 상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나 30년 동안 혼자 애 키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내가 봐도 장해요. 나 상 받을 만해요. 근데 왜 이제 주시는 거예요?”라면서 제도로 강요되었던 모성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 가장이 부재하는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가장 역할을 수행했던 강순옥의 수상 소감 연습이 “제일 문제였던 둘째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또 요리와 상담을 접목해서 자기만의 클래스를 갖고 있고요.”라는 자식 자랑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해 김현숙이 “엄마의 믿음과 사랑 아니었음, 저도 그냥 문제가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라고 화답하면서 전형적인 모성 서사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만, 강순옥이 실제 인터뷰에서 “애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 상은 어머니상이 아니라, 딸들이 받을 상이에요. 제가 뭐한 게 있나요.”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수상 소감에 대해 자식 세대인 김현정과 김현숙 그리고 정마리가 “그게 끝이냐”는 표정을 지으며 의아해하는 모습으로 전체 서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존 모성 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면서도 남성이 부재하는 급진적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여성들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한 가족드라마라 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가족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의 곤고함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정서적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주의를 지향한 가족드라마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수렴하기 어려운, 남성 가장이 부재한 위기 상황을 여성들의 정서적 유대감에 극복한 관계적 가족주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가족주의 요소 가운데 원가족과의 관계는 부계규범을 중심으로 한 (남성들의) 제도적 가족주의와, (여성들의) 관계적 가족주의로 구분하여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가족 담론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남성 생계 부양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각자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들의 사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기능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강순옥을 중심으로 한 여성 3대의 가족 서사를 통해 유교적·부계 계승적 성격의 제도적 가족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각기 다른 사연으로 남성 가장의 부재라는 위기에 처하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다가 공감대와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 중심의 가족 서사는 물론, 혈연에 제한되지 않는 우정으로서 가족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강순옥을 통해 여성으로서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어머

니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제도화된 이데올로기로 강요되었던 모성 담론에서 벗어나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어머니로서 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강순옥과 딸들의 화목한 관계로 끝난 마지막 장면은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유교적·부계 계승적인 제도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면서도 남성이 부재하는 급진적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여성들의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에 근거한 관계적 가족주의를 지향한 가족드라마라 할 수 있다. 다만, ‘올해의 어머니상’을 수상한 강순옥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기존 모성 담론의 한계와 이에 대한 자식 세대의 반응이 경제 위기에서 비롯한 가족 담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인영 극본, 유현기·한상우 연출, <착하지 않은 여자들>, KBS2, 24부작, 2015.2.25-5.14.

2. 단행본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김환표,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 인물과사상사, 2012.

에슬린, 마틴, 김문환·김윤철 역, 『극마당 : 기호로 본 극』, 현대미학사, 1993.

바우만, 지그문트, 정일준 역, 『레트로토피아 : 실패한 낙원의 귀환』, 아르테,

2018. 장경섭, 『내일의 종언(終焉)-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한국방송작가협회 편, 『방송작가』 통권 117호, 2015. 12.

3. 논문 및 기타 자료

강남식, 「빈곤·여성·가장·삼중의 수난」, 『황해문화』 33, 새얼문화재단, 2001.

1.

김혜경, 「부계 가족주의의 실제? : IMF 경제 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제47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13. 4.

김혜경, 「스위트 홈의 꿈을 넘어서 : 새로운 가족구성의 회로찾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7. 11.

남영옥,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9.

박지혜·김근향·고영건, 「한부모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불안, 사회적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5.

박혜경,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파와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3), 한국여성학회, 2011. 9.

백경선, 「김수현과 노희경 가족드라마의 대중성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8.

윤석진, 「한국 텔레비전 가족드라마의 가족자유주의 양상」, 『어문논총』 제34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2.

이혜정, 「선택의 공동체와 우정」, 『철학연구』 150집, 대한철학회, 2019. 5.

임옥희, 「신자유주의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 『여/성이론』 (22), 도서출판 여이연, 2010. 6.

조은,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26(1), 한국여성학회, 2010. 3.

주숙희, 「김인영의 미니시리즈 드라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2.

Abstract

Familyism in the Television-drama *Chakhaji aneun yeojadeul*

Yun Sukjin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pattern of familyism in the family-drama *Chakhaji aneun yeojadeul*. *Chakhaji aneun yeojadeul* has drawn attention as a family drama that portrays the difficulties of being born and living as women in Korean society, while presenting a new female award. Accordingly, the following two conclusions were reached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and father-to-son institutional familyism and relational familyism based on emotional bonds.

First, *Chakhaji aneun yeojadeul* is the story of women who seek to survive in their own way in the absence of a male breadwinner. That means the work is a family-drama that has renewed its quest for familyism, showing a change in family function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Chakhaji aneun yeojadeul* was aiming for a relational familyism based on emotional bonds while exposing the cracks in institutional familyism through the lives of women who had to involuntarily assume the role of impersonation in a crisis caused by the absence of male impersonations.

Second, despite the absence of a male impersonator, I could see that *Chakhaji aneun yeojadeul* was a family-drama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family narrative as well as a friendship that was not limited to blood ties. It was especially notable that she showed a mother whose self-identity as a woman was clearly evident from her motherhood, which had been institutionalized.

In conclusion, *Chakhaji aneun yeojadeul* is a family-drama that tries to break away from Confucian and father-to-son institutional familyism but avoids radical familyism that lacks males, and to compromise toward relational familyism based on women's emotional empathy and bond.

Key words : *Chakhaji aneun yeojadeul*, Family-drama, Institutional familyism, Kim In-young, relational familyism, Television-drama

접 수 일: 2019년 8월 12일

심사기간: 2019년 8월 19일~2019년 8월 30일

게재결정: 2019년 9월 23일